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성(姓)이 홍(洪) 씨인 두 사람의 작가가 있다. 그 중 한 사람의 작품은 신선하다. 또 한 사람의 작품은 진부하다.

먼저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제프 홍(35) 씨. 인터넷을 통해 그의 작품을 봤다.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은 디즈니'(Disney unhappily ever after)라는 제목의 시리드다.

작품에는 누구나 어릴 적 즐겨 봤을 동화 속 주인공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동화 속에서처럼 행복한 모습이 아니다. 작품은 오히려 절망적인 장면의 묘사로 채워진다. '꿈이 이뤄지는 곳'(where dreams come true)이라는 디즈니의 모토가 무색하다.

인어공주는 해안가에 유출된 기름을 뒤집어 쓴 채, 고통스러운 표정이다. 신데렐라는 누더기 드레스를 걸친 모습으로, 한밤중 지저분한 골목에 숨어 두려움에 떠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수상한 액체의 병을 들고 있는데, 해로인에 중독됐음이 분명하다.

왜, 자칫 동시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작가로부터 이유를 들어보니 그럴듯하다. "디즈니 주인공들이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작품을 만들게 됐다.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

고 있는 주인공들의 가슴 아픈 모습을 통해, 피폐해진 우리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신선하지 않은가.

예술이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거나,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예술이란 '실제 현실이 아니라, 꾸며서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

허수아비를 닭으로 바꿔도

이제 홍 씨 성을 가진 또 다른 작가와 작품을 보자. 홍성담.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 걸리지 못한 그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작품엔 광주민주화운동 시진군 등이 참몰한 세월호를 번쩍 들어올려 승객들을 모두 구해 내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가 된 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이다. 풍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진부하지 않은가.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대통령 조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출산하는 듯한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삼을 악기 삼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그 그

림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등이 역시 허수아비의 모습으로 뒤편에 서 있다.

예술이 선전 문구나 포스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물론 독재 시대에는 예술이 사회참여 도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 적도 있긴 하다. 홍 씨는 광주항쟁 이후 그런 방식으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런데도 그의 작품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진부하다는 거다.

문제가 되자 작가는 허수아비로 표현된 박 대통령의 모습 위에 닭 그림을 오려 붙였다. 닭이 고통받는 민중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전에도 수많은 누리꾼들이 장난스럽게 사용했다. 그 익숙한 표현('닭근혜')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홍 씨의 그림이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기는커녕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예술은 사기'라 했던 백남준의 말에 비춰 봐도 그의 작품은 너무나 정직(?)하다.

미술평론가 임근준 씨 역시 '세월오월'에 대해 "예술적 직관력이나 풍자의 수준이 높은 작품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일찍이 사퇴한 큐레이터

윤범모(가천대 교수) 씨도 "광주정신을 승화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직설적인 것보다는 예술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작가에게 주문했는데 주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

결국 그의 그림 전시 유보를 놓고 말들이 많지만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이즈마케팅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소란을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구태의연한 미술 운동' 아니냐는 것이다.

예산 깎이면 책임질 자 있나

애초 작가의 성향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내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도 참여작가로 선정된 주최 측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것은 사실이다. 광주비엔날레의 올해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모두 87억 원. 홍 씨 작품의 전시를 유보한 것은 다음 행사 때 정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아예 도외시키고 작품을 내건다면 우선 당장은 박수를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할 사람은 독재자 빼고는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을 걸고 나서 나중에 예산 문제로 비엔날레가 위축되거나,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산비엔날레에 밀린다면!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현안의 예산마저 소리 없이 깎인다면! 그때도 과연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노라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

표현의 자유를 '광주정신'에 결부시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광주'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남들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80년대의 '전투적 광주정신'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마침 충남 공주에서는 지금 허수아비 축제가 열리고 있다. 허수아비 풍자가 논란이 된 그의 그림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주 축제에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물론 그곳에서도 받아 줄지는 의문이지만)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이제 성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과거의 모든 '터전을 불태우고'(BURNING DOWN THE HOUSE) 그야말로 새롭게 시작됐으면 하는 것이다.

광주 원로들 “박대통령 풍자그림 전시 안돼”

〈세월오월〉

지역 미술인, 비엔날레 정상화 촉구

광주지역 원로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풍자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성담 씨의 걸개그림(세월오월)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정환 광주시장 은 지난 20일 안종일 전 광주시교육감,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 조보오 신부 등 지역 원로 16명과 만찬을 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광주 하계 U대회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다수 원로들은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특별전에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

졌다. 만찬에 참석한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원로 한두 분을 제외하고 참석자 대다수가 풍자 그림 전시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지역 미술인들은 비엔날레 특별전을 주도한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사)광주미술상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광주비엔날레 정상화를 위해 대책위원회 구성하라”면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의 파행을 넘어 비엔날레 문제점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퇴를 표명한 이용우 비엔날레 대표에 대해 “특별전 파행의 원인을 광주시 책임으로 전가해 본질을 흐도했다”며 “사건의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정된 사과를 한 후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논란과 파행의 중심에 있는 홍성담 작가는 현장에서 와서 그동안 진행 상황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5.18 기념재단과 5월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광주비엔날레 창립 20주년 특별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걸개그림 '세월 오월' 전시가 사실상 불허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광주시 스스로 광주정신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대통령, 수방사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인 울지프리덱가디언(UFG) 연습이 진행 중인 21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내 합동작전본부를 방문,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병영사고에... ‘국방헬프콜’ 상담 증가

최근 병영 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장병 상담전화인 ‘국방헬프콜’에 들어오는 상담 신청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

까지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758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601건)보다 157건이 늘었다. 8월 들어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약 40건으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1일 평균 상담 건수 33여건보다 7건

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등이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장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병영 내 사고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장병들이 국방헬프콜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정 전남, 안구건조증 유병률 가장 낮아

공기 질이 좋은 전남지역 주민들의 안구건조증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김현창(예방의학)·이형근(안과) 교수팀과 고려대의 송종석(안과) 교수팀은 안구건조증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샘플로 선정된 30세 이상 1만6431명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의 지역별 유병률 지도’를 광역시도 단위로 조사했다.

국내에서 지역별 암지도가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지역별 안구건조증 지도가 만

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울산광역시의 안구건조증 유병률이 인구 100명당 14명꼴에 달하는 1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부산(12.5%), 대구(10.6%), 전북(9.6%), 서울(9.3%), 경기(9.0%), 경남(8.8%), 광주(8.4%), 충남(7.7%), 경북(7.4%)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유병률이 낮은 지역 3곳은 전남(4.2%), 강원(5.3%), 충북(5.6%)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4-1호

광주환경공단 임원(비상임이사) 모집공고

광주환경공단 임원(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영능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4년 08월 22일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가. 비상임이사 : 2명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3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업(공기업) 경영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능력을 갖춘자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4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공단 경영에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 심의·의결

5 직무수행 요건
○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6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
가. 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
나. 보수 :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며, 기타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09. 01(월) ~ 09. 05(금)
* 단,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 시는 원서접수 마감일 18 : 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다. 접 수 처 : 광주환경공단 총무팀(본부 2층)
라.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치평동 753-1)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8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부.

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분량제한 없음, 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분량제한 없음, 소정양식)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A4용지, 소정양식) 1부.
사.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소정양식은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9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 발표
나. 2차 면접심사 : 생략
다. 최종합격자 통보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임원(비상임이사)후보자를 복수추천하며, 광주광역시장이 적임자를 임용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 공모 별 별도계획에 의거 선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환경공단 총무팀(☎062-603-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